

# “서민 금융·생활 도움주는 은행원 되겠다”

### 보이스피싱 예방 광주 남구 NH은행 직원 황현주씨

#### 큰 돈 인출 시도 고객 의심 3천만원 피해 막아 사소한 것에 감사하는 고객 덕분에 보람 느껴

“작은 마음에도 감사해 주시니, 더 많은 고객님께 더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광주의 한 은행원이 기지를 발휘해 주민의 대출 사기 피해를 막아 화제가 되고 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지난 23일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문자에 속아 큰 돈을 인출하려는 주민을 설득해 대출 사기 피해를 막은 황현주(36)씨에게 감사장과 기념품을 수여했다.  
황씨는 이달 11일 오후 2시50분께 광주 남구의 한 NH은행 지점을 찾아 저금리로 대환대출 해 주겠다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문자에 속아 3천만원을 대출받은 뒤 수거자에게 전달하려는 한 주민(60대)을 설득해 피해를 막은 공로를 인정

받았다.  
황씨는 “당시 고객님이 3천만원을 현금으로 찾으러 오셨다. 고객님의 주 거래처가 농협이어서 낮이 익었는데 이분이 고객 거래를 잘 하지 않으신다는 걸 알고 있었다”며 “큰 돈을 찾으시길래 ‘어디에 사용하실 거냐’ 여쭙보니 자제를 구입한다고 하셨다. 어떤 자제를 구입하실 거냐고 추궁하니 그랜 대담하지 못하시더라”고 회상했다.  
해당 주민은 이미 이날 오전 중 농협에서 3천만원 대출을 받은 상태였다. 이후 고객은 한 문자를 받았다고 실도했다. 해당 문자에는 농협에서 대출받아 현금으로 수거자에게 전달하면 본인들



광주 남부경찰서는 지난 23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황현주(36·왼쪽)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이 더 저렴하게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내용이 있었다.  
황씨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고객님?”이라고 물었고 주민 역시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다.  
이후 황씨는 곧바로 광주 효덕지구대에 신고

했고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황씨의 작은 신경은 누군가 소중히 모았을 큰 돈을 지켜냈다. 광주에서 오랜 시간 살아온 황씨는 은행원 10년 차다. 현재 근무 중인 농협 지점에서 일한 지는 3년이 됐다.  
황씨는 “어쩌면 그냥 지나칠 수 있었던 일인데, 그날은 참 이상했다. 그냥 넘어가고 싶지 않았다”고 웃으며 말했다.  
보이스피싱 사기를 피한 주민은 얼마 뒤 황씨 앞으로 작은 봉투를 들고 찾아왔다. 주민이 ‘과자라도 사 먹어라’며 건넨 봉투 안에는 소액의 현금이 들어있었다.  
황씨는 “나는 매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크게 느껴지지 않아도 고객들은 사소한 것 하나에 고맙게 생각해 주신다. 늘 감사한 마음”이라고 뿌듯함을 드러냈다.  
그의 목표는 하루하루 즐겁게 일하는 것이다. 황씨는 “하루에 수 십 명씩 많은 이들을 대한다. 이들의 금융에, 생활에 지속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성실한 은행원이 되고 싶다”고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김대인기자

### 박길현 광주시 주무관, 물분야 기술사 2관왕



광주시는 28일 “군공공학교 통곡 도로과 박길현(시설 6급·토목) 주무관이 지난해 125회 수질관리기술사 자격을 취득한데 이어 올해 127회 상하수도기술사에 합격해 물 분야 기술사 2관왕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상하수도기술사는 상하수도 기초 분야의 토목기술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시험, 운영, 시공, 평가, 이에 관한 지도, 감리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하는 가장 권위 있는 최고 등급의 전문자격이다.  
박길현 주무관은 2003년 공직에 입문해 상수도사업본부, 종합건설본부 등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도를 공급, 도시 물순환구조·하천의 수질환경 개선, 하수도관로 이송능력 향상, 광역위생매립장 확장 등 상하수도와 환경기초시설 분야에서 계획·설계, 시공 감독 업무를 추진했다.  
박 주무관은 “앞으로 물 분야 수질관리와 상하수도 기술사의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연계해 지역의 수질관리 및 상하수도 발전은 물론 후배 전문가 양성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성강기자



## 윤공희 대주교, 염주동성당서 99세 감사미사 주례

한국 천주교 생존 주교 가운데 최고령자인 광주대교구 윤공희 대주교가 지난 27일 백수(白壽·99세) 감사미사를 주례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염주동성당에서 집전된 미사에는 한국 천주교 주교단, 주한교황대사관 관계자, 사제, 수도자, 신도 등이 참석했다.  
윤 대주교 아흔아홉세 감사미사는 미사와 축하식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축하식에서는 주한교황대사관 페르난도 레이스 몬시뇰이 주한교황대사의 축사를 대신 낭독했다. 주교회의 부의장인 조규만 주교, 윤 대주교가 교구장 재임하던 2000년에 마지막으로 주례

했던 서품미사에서 수품을 받은 안세환 신부도 축하했다. 광주대교구장인 김희중 대주교는 감사 인사를 전했다.  
1924년 11월8일 평안남도 진남포 출생인 윤 대주교는 함경남도 덕원신학교 철학과와 신학과를 수료하고 서울 성신대학을 졸업했다.  
1950년 3월 20일 사제 수품을 받고 서울대교구 명동 주교좌성당 보좌 신부, 부산 UN 포로수용소 종군 신부 등을 지냈다. 1963년 10월20일 주교품을 받았고, 1973년 11월30일 대주교로 승품됐다. 광주대교구 제1대 교구장 직을 수행하다가 2000년 11월30일 퇴임했다. /최영진기자



## 강기정 시장, 광주공동모금회 명예회장 추대

강기정 광주시장이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명예회장으로 추대됐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 시장은 지난 26일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박철홍 회장으로부터 추대패를 전달받고 (세희망을나누는사람들의 기부금품 전달식에 참석해 명예회장으로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  
(세희망을나누는사람들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마스크 400만장을 기부했다. 전달된 마스크는 광주공동모금회를 통해 5개 자치구와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 다문화 등

불어웃고 사회복지시설에 배분될 예정이다.  
김동우 (세희망을나누는사람들 부회장은 “이번 나눔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현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력해 지역사회에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힘쓰겠다”며 “오늘 나눔과 연대의 공동체 정신으로 소외받는 시민이 없는 따뜻하고 총명한 돌봄도시 광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성강기자



## 남부대-수완센트럴병원 ‘상호 협력’ 협약

남부대학교 (총장 서범석)와 수완센트럴병원 (대표원장 고길석)은 최근 남부대학교 총장실에서 업무협약 체결 및 발전기금 기탁식을 가졌다.  
협약식에는 남부대학교 서범석 총장, 강경숙 부총장 이주상 기획처장, 이경록 총무처장, 최승식 무도경호학과장, 이애연 무도경호학과 교수가 참석했고, 수완센트럴병원 고길석 대표원장,

임현숙 간호부장, 송용국 대외협력부장 박인식 총무부장, 안이론 홍보과장, 서미란 투석부장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협력적 업무연계를 통한 발전과 상호간의 발전을 위해 협약을 체결하고, 수완센트럴병원은 남부대학교에 인제 육성을 위해 1천만원의 발전기금을 기탁했다. /임채만기자



## 호남대 교직원 5명, ‘중한우호상’ 등 수상

호남대학교 손완이 국제교류처장 겸 공자아카데미장과 이정림 교수(중국어학과), 조경완 교수(광주차이나센터장), 정철 홍보실장, 최유미 광주차이나센터 팀장 등 5명이 주광주중국총영사관 (총영사 장청강)으로부터 중한 우호상과 주한중국대사 감사패를 수상했다.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주광주중국총영사관 주최로 최근 호남대학교 전연찬대운동장에서 열린 ‘중한수교 30주년 경축 리셉션’에서 손 처장 등 4명의 교직원은 중한 우호상을, 조경완 교수는 주한중국대사 감사패를 수상했다.  
‘손에 손잡고 함께 미래로’를 슬로건으로 열린 이날 리셉션에는 장청강 주광주중국총영사, 강

기정 광주시장, 김광영 전북지사, 박창환 전남도지사, 박영식 전남도 국제관계 대사, 박준영 전 전남지사, 박상철 호남대 총장 등을 비롯한 영사관할 지역 각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대학교, 언론, 중국 교민 단체, 공자 아카데미, 중국 기업, 유학생 대표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박상철 총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주광주중국총영사관의 그간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호남대학교는 지난 20여년간 한중우호교류를 위한 민간외교관의 역할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며 “앞으로도 양국의 교육 교류와 문화, 경제 등 다양한 우호 교류가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채만기자



## 목포수협, ‘사랑海 쌀’ 1천200kg 복지시설 기증

전국 최고 수협으로 거듭나고 있는 목포수협이 최근 서울 강남수서지점(수도권 3호점) 개점 기념 축하로 받은 쌀을 모아 서울시 동작구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에 기증했다.  
쌀 기증은 김경룡 목포수협장이 강남수서지점 개점식이 끝난 직후 개점식 축하 쌀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이뤄졌다.

목포수협이 기증한 쌀 1천200kg은 사회복지기관을 통해 지역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김경룡 목포수협조합장은 “목포수협이 수도권에 진출해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고객 덕분이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과 나눔을 지속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목포=정해선 기자



## 보성경찰, 군의회 방문 치안설명회

보성경찰서(서장 임진영)는 지난 26일 보성군의회(의장 임용민)를 방문해 ‘더 안전한 보성을 만들기 위한’ 2023년 범죄예방 환경(CPTED)사업 예산확보 치안설명회를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치안 환경 변화와 경찰서 중점 추진 활동사항 및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임진영 보성경찰서장은 “범죄취약 지역을 지속 발굴 개선하는 한편, 경찰과 지자체 간 유기적 협력 관계에 적극 동참해 안전한 보성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임병언기자



## 전남서부보훈지청·영흥중 광복회전남지부에 감사물품 전달

전남서부보훈지청(지청장 유형선)이 최근 목포 영흥중학교 봉사동아리 학생들과 함께 광복회전남도지부(지부장 송인정)를 방문, 직접 제작한 감사 물품 전달식을 가졌다.  
영흥중학교 봉사동아리는 광복제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업사이클링 소품을 활용한 안마방, 냄비 받침, 컵 받침을 직접 제작하고 감사 편지를 작성해 광복회전남도지부에 전달했다.  
송인정 광복회전남도지부장은 “독립유공자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목포=정해선기자



## 광주보훈청-광산구 ‘일자리 창출’ 협약

광주지방보훈청(청장 임종배) 제대군인지원센터는 28일 “최근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안정적 고용창출을 위해 광산구청과 ‘일자리 창출 활성화와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제대군인에게 양질의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규제혁신·적극행정 추진의 일환으로 일자리 창출 활성화 업무 추진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마련됐다. /오복기자

## 부음

●조예민씨 별세, 향년(택전 광주시의원)씨 장모 상=발인 30일(화) 오전 전북 익산 동이리장례식장 3층 모란실(063-843-4444).